

“ 빈약한 자의 강한 애소(哀訴) ”

■ 이종윤 원로목사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시41:1) 즉 가난과 복을 연결시키고 있다. 물질적 가난을 말씀한 것인가?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 5:3)라고 하심으로 여기서 가난은 물질적 가난만이 아니고, 신체적으로 병약한 자, 마음이 빈약한 자, 사회적 위치가 미약한 자, 하나님의 징계 아래 고난을 당하는 자를 가리키신 것이다. 이런 자는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빈약한 자들을 외면하고 경멸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빈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자비를 베푸는 자들을 지켜보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겠다 하신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불우한 이웃을 돌보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다. 시편 41편에 의하면 재앙의 날에 그를 지켜 주신다 했다. 그의 생명이 보호를 받고 세상에서 잘되게 하시고 원수의 손에서 건져 주신다. 그리고 병들어 늙게 되더라도 고쳐 주시고 일어나게 하신다. 궁핍히 여기는 자는 궁핍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교만하여 마음이 부한 자가 아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영적 파산자(Spiritually bankrupt)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무엇인지 알고, 자신은 죄와 부패로 더러워진 존재임을 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인식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인간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만 칭의를 얻을 수 있다는 교리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다. 이와 같은 가난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원리를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자력으로는 산상보훈의 말씀을 이룰 수 없음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여 주셔야 한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시내산 위에서 받는 동안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 대신 섬기며 노래했다. 이처럼 십계명 즉 하나님의 의의 표준은 죄인 된 인간에 의해 성취될 수 없음이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이미 밝히 나타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고 회개 자복하는 이에게는 희생제물을 바칠 때 죄를 용서하시거니와 자기 의를 자랑하고 율법을 불순종하는 이에게는 율법의 높은 기준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수께서도 유대인들의 종교 행위를 우선이라 책망하시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다. 다윗은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시 41:10)라는 즉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 사상과는 배치되는 기도를 하고 있다. 하나님이 세워 주신 왕으로서 다윗은 원수를 멸할 힘을 달라는 통치자의 책임을 하는 기도를 한다. 병중에서도 모독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본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면 오히려 율법은 인간을 심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인간은 말씀 수준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친 이들과만 율법을 성취시킬 수가 있다. 중생치 못한 이들 즉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속에 없는 이들에게 산상보훈을 말씀하는 것은 이리와 양이 한 구유에서 먹는다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듭난 새로운 성품이 먼저 요구될 때 실현될 수가 있다. 우리 삶 속에 채우기 전 먼저 비워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전 영적으로 먼저 가난해져야 한다. 새 술을 붓기 전에 옛 술을 부대로부터 버려야 한다. 패한 후 흥하게 되고(눅 2:34) 채우려면 먼저 비우라는 것이다. 회심 전 회개를, 구원 받기 전 하나님 면전에서 무가치한 존재임을 고백해야 한다. 빈 그릇을 준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당신을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의 수준에 이르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빈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불가능한 일이다.

거룩하시고 의롭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타인을 바라보면서 또는 다른 사람 안에서 심령의 가난을 만들어 낼 수는 없다. 인간의 심령은 만물보다 부패했기 때문이다. 타인과 비교해서 나는 좀 낫다 하는 이가 있으나 그리스도보다 더 완전한 이는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자비와 구원의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비로소 겸손해지고 필요를 깨닫게 되고, 그 결과가 복될 것이다. 우리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한 이사야처럼 고백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음으로 당신 자신에 관해 잊어버리고, 자신을 작고 더러운 존재로 보고 자신의 관심에 관해 잇는 것이 더 좋다. 그때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보게 될 것이고 그에게 점점 더 가까이 가도록 애소(哀訴)케 될 것이다.

-한국장로신문 [제 1612호] 2018년 9월 22일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701, 11:20am]	[Rev. Euichang Kim, PhD]
Praise & Worship	Praise Team
Prelude	Pianist
* Call to Worship	Pastor
* Hymn	25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al Prayer	Deacon Dong Woo Park
Hymn	263
Scripture Reading	1 Pet 2:1-3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 Offering Prayer	Pastor
Anthem	Jerusalem Choir
Sermon	“Like Newborn Babies”
* Hymn	484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	Congregation
(* Please stand)	

<h3 style="text-align: center;">우리의 비전 (vision)</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p>서울교회QR코드</p>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교육전도사 김은숙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교사 전광해(세이시야),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허규(카호스탄), 이경엽, 조남해(방글라데시), 조병연(기화정, 우상성(김정옥(인도), 서광중(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필리핀), 김영호(서형정(러시아), 허창범(한신(일본), 김낙형-오정혜(캐나다), 김종일(박준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트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터(로이, 필리핀, 프란시스코, 수레시, 수버샤, 알로롱, 비시(부룬디, 보디스토, 린툼, 수란(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양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성찬(홍성일(필리핀), 이재물(박병진(김포(대아), 이재훈(박재연(미디(가나(기)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text-align: center;"> <p>대한예수교 장로회</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h1 style="margin: 0;">서울교회</h1> <p>SEOUL PRESBYTERIAN CHURCH</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원로목사 Emeritus Pastor</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이종윤</p> <p>Lee Jong-Yun, Ph. D., DD., D. D.</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20px; font-size: small;"> <div style="width: 60%;"> <p>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p> </div> <div style="width: 35%; text-align: right;"> <p>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p> </div> </div>
--	---

“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

■ 고전 4:16-21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자신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 맞고 갈하는 수모를 당하는 환난이 끊이지 않는 길을 가고 있지만 도리어 그것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드러났고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깊이 경험하며 복음의 빛을 더 찬란히 비추이는 길을 가고 있지만 이와 같이 너희도 복음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당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길 다 달려고 있는 나를 본 받아 그와 같은 믿음의 승리의 대장정을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는 자신의 소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1. 영적 돌봄과 섬김은 아비의 사랑으로 가능하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간주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자식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바울이 그런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를 향한 바울의 아담과 경교가 당시에는 슬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자녀같이 권면하고 극진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훈계하고 책망하고 권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참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2. 영적 돌봄은 사도적 교훈으로만 가능하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또 다른 이유는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18개월이나 머물면서 밤낮으로 가르치고 수고한 것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메시지가 사도들의 교훈과 부합하는 말씀인지,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이 남겨준 신앙유산과 같은 것인지, 우리를 복음으로 낳아서 길러주고 양육해준 분들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과 다른 복음,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와는 다른 예수, 사도들이 전해준 성령과 다른 영들을 말하는 것은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이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특히 예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은 구주 예수로부터 받은 은혜의 복음,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복음 진리를 가르쳐준 것들이 다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었고, 디모데 역시 같은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 이 역사적 전통을 새가망에 잊어버리고 죽보에도 없는 이상한 가르침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고후 2:17) 자여야 합니다. 지금 주님의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들은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것으로 말미암은 것들이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교회들에서 바른 교훈,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을 듣기가 점점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말세에 교회들이 직면하게 될 불행한 현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딤후 4:3-4)

맺는 말

윤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윤리는 시대 상황에 따라 언제나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시대, 모든 인간, 모든 상황에 적용되고 실천되어야 할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십니다. 믿음으로 활떡거리며 받아먹는 자는 말씀 안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한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사도들이 전해 준 복음의 향기를 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종교개혁자들이 전수해 준 정통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공유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환난 중에 있는 많은 주님의 교회들을 능히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지렛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해도 진실 된 그리스도인들이 흠모하고 기뻐하는 참 진리의 기둥과 타인 복된 교회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 서광원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최형열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전재홍 목사	하인선 장로
III 오후 2시	서명철 목사	서명철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시 107:1...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6(8)...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06(감사절 2)... 다 합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합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587(306)...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시 33:4-5...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합 께
 봉 헌, 추수감사헌금 Offering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합 께
 설 교 Sermon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서창원 목사
 * 찬 송 Hymn429(489)...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합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교회설립29주년 / 추수감사찬양예배

오후 5시 ·인도: 전재홍 목사, 설교: 권영평 목사
 목 도 다 합 께
 성 시 시 103:1 인 도 자
 찬 송 390(444) 다 합 께
 기 도 이준호 집사
 성 경 마 16:13-18 인 도 자
 시명자대회 결과보고 말 은 이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반석 위에 세운 교회” ... 설 교 자
 특별찬양 할렐루야찬양대
 * 찬 송 488(539) 다 합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합 께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기 도 ... I부: 박미혜 권사 II부: 김정제 권사
 성 경 삼하 10:1-19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내게 은총을 베푸는 것
 같이 하리라” ... 설 교 자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연·박수강·김복희
 설 교 조원영 목사

새벽기도회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정혜은	윤주일	가브리엘		
II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연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연	윤주일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시 33:5)		
영어예배	예루살렘				금주의 성구			
수요 I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수요 II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701호
수 요 예 배	I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웨스트민스터 홀

교 회 소 식

◆ 알 림

1. 1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5.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6.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7. 609호 부서 모임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8. 701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702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추수감사절 및 교회설립 제29주년 감사주일 / 오늘은 추수감사절 및 교회설립 제29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주일예배 시간에는 추수감사헌금을 드립니다.

◆ 결 혼

- 김동환 군(12교구 김성준 집사, 김선영 권사의 차남) 정자는 양(15교구 정완진 집사, 김희순 권사의 장녀) / 11월28일(토) 오후 7시 도심공항터미널 3층 소노펠리체 컨벤션(02-2222-7401) 2호선 삼성역 5번 출구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새벽기도
1,481명	354명	1,835명	416명	4,044명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입, 지출 내역보고(11/15)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11월15일	헌 금	30,001,300	
	특별예배비		21,410
	찬양운영비		400,000
	교회학교운영		452,040
	선 교 비		300,000
	행 사 비		3,363,000
	구 제 비		300,000
	출 판 비		210,000
	연합사업비		500,000
	지원교회		2,600,000
	세금과공과		1,612,390
	복리후생비		67,000
	통 신 비		42,900
	수도광열비		283,200
	차량유지비		541,360
	사무용품비		1,253,500
	소모품비		2,773,670
	잡 비		5,000,000
	환경유지비		478,800
	수선유지비		16,542,970
	식당운영비		952,490
	합 계	30,001,300	37,694,730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확산에 따른 서울교회 영상예배 지침

-주일 영상예배 지침-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일예배 준비와 예배 자세에 관한 아래의 지침을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공간을 정숙하게 구별하여 주십시오.
- 예배자로서의 옷차림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복장과 자세 모두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장소만 바뀐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예배드리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시작 5분 전, 마음을 모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실시간 영상은 5분 전부터 방송됩니다.
- 예배순서에 적극 응답하며 참여하여 주세요. (“아멘” 댓글 작성 등)
* 기원기도, 신앙고백, 성경봉독과 설교 시 응답, 찬송, 봉헌 등
- 축도(폐회기도) 후, 1-2분간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헌금은 실시간 예배의 헌금시간에 맞추어 따로 준비한 접시나 바구니에 구별하여 드리고, 추후 교회의 주일예배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함께 드리시면 됩니다.